

特 信

肥料供給國의 빈축사고있는 北韓

尿素 10 万吨購買한다 去來照會내고

國際時勢보다 싸게 팔고, 비싸게 사들여

우리 韓國의 肥料輸出意識한 政略輸出인듯

北韓은 얼마前에 當面한 需要不足을 메꾸기 위해 尿素 10 万吨의 購買를 前提로 日本을 비롯한 여러 肥料供給國에 去來照會를 한것으로 알려진바 있는데 最近 入手된 未確認情報에 依하면 요즘 北韓은 國際時勢보다 훨씬 싼값(7~8弗)으로 尿素 3 万吨을 印度와 輸出契約을 締結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輸出한 價格보다 屯當 \$17이나 비싼 價格으로 尿素 1 万吨을 Kwait에서 輸入키로 하는등 到底히 理解할 수 없는 處事를 恣行하고 있어 그동안 北韓側과 尿素輸出入問題를 놓고 Nego를 해온바 있는 日本과 그밖의 여러 肥料供給國의 빈축을 사고있다.

印度에 尿素 3 万吨輸出契約

國際時勢對比 \$ 8 싼 FOB \$ 135 로

즉 最近의 未確認報道에 依하면 北韓은 印度 M M T C와 尿素 3 万吨의 輸出契約을 締結하고 8 月부터 10 月까지 月 1 万吨式

船積키로 했다고 하는데 輸出價格은 F O B袋 \$ 135의 低水準으로서 最近의 國際時勢인 \$ 143線에 比해 屯當 約 \$ 8整度 싼 값이다.

北韓의 이와같은 對印度 輸出契約說에 關해 日本肥料業界에서는 事實與否에 對해서는 무엇이랴 말할수 없으나 北韓이 過去에도 印度에 尿素를 팔았던 実績이 있었던 點으로 미루어 이번의 売却도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

Kwait에서 尿素 1万吨輸入契約

輸出한價格보다 屯當 \$ 17비싼값에

한편 業界에 들어온 非公式情報에 依하면 北韓은 Kwait의 K P I C에서 尿素 1万吨을 輸入키로 契約을 締結했다 한다. 輸入價格은 F O B袋 \$ 152 (一說에는 同 \$ 151) 라고 하는데 이는 國際時勢에 比해 約 \$ 9, 北韓이 印度에 輸出키로 한 價格에 比해서는 자그마치 屯當 \$ 17이나 비싼 價格인 것이다.

이와같이 北韓은 內需充足을 위해 10万吨의 尿素輸入을 必要로 하고 있는 現實속에서 印度에다 低廉한 價格으로 3万吨을 輸出하고 비싼價格으로 輸入하고 있는 処事에 對해 日本등 大多數 肥料供給國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理解할수 없는 일이라는 反應을 보이면서도 우리韓國에서의 肥料輸出을 意識한 政治的次元에서의 政略的輸出로 풀이하는 見解가 濃厚하다.